

대행 스님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항상 나를 한번 돌아보라

L.A.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모든 생명이 이 세상에 나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문제를 넘기고 그냥 갈 수는 없다고요.

불교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떤 것인가. 불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될 것이고, 종교라는 그 자체의 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교라고 하죠. 그렇다면 풀 한 포기 벌레 하나도 불교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어떻게 국한돼 있겠습니까. 불교를 국한된 종교라고 생각하신다면 영 틀린 일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먼저 알아야겠고, 두 번째는 인간의 도리를 알려면 나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하며, 나 자신의 주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는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항상 나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가정이 편안하고 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지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갈 수는 없다는, 필수적이라고 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법이다 사법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또는 기독교다 불교다 가톨릭교다를 떠나서, 그 이름은 한계가 있는 상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버스라면 우린 지금 같이 타고 가는 그 버스가 어디를 돌아서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교가 어떠니 종교가 어떠니 하고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 무슨 대승법이다 소승법이다 하고 싸우겠습니까. 벌레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뚱이 속에 조그마한 별성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 속의 오장육부나 세포에서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국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상세히 알고 본다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광대무변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구에 있는 인간이라면 인간 속에 들어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벌레라고 하고 지구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교가 따로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현 생활이 그대로 불교며 그대로 진리이며 그대로 평등하며 그대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 바로 종교가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가 있고, 생각을 안 내면 부처인 것이고 생각을 냈다 하면 법신인 것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9%가 부처라고 말씀하죠.

이런 것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마는, 법당에 가면 석가모니를 모셔 놓고 문수, 그다음에 보현을 모셔 놓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달은 분들은 한생각을 내는 것을 바로 법신으로, 문수로 칩니다. 그리고 움죽거리는 것을 보현으로 칩니다. 그렇다면 한생각에서 바로 움죽거림이 나온다는 것이죠. 생각을 안 하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이자 보신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언짢고 이런 말을 잘하죠. 여자 남자도 가립니다. 비구 비구니도 무척 가립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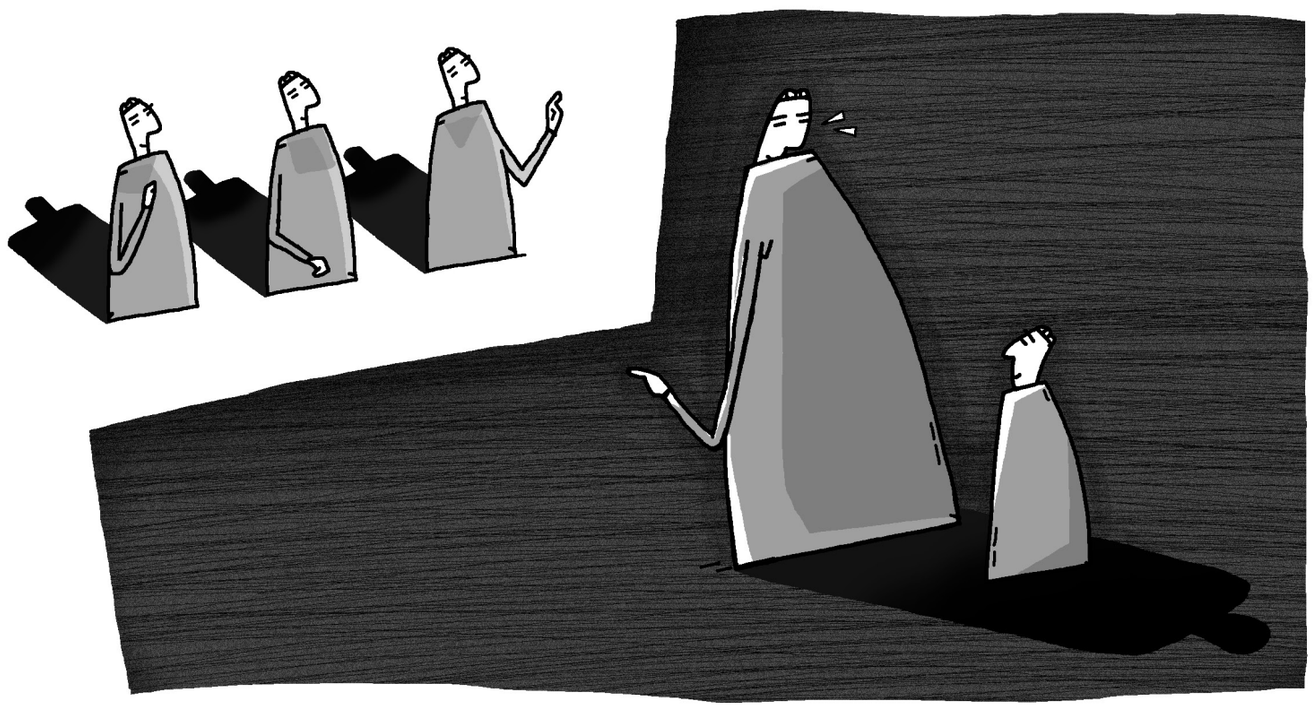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옛날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 와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째 비구니인데 '큰' 자를 붙이느냐고요. 전화에다 대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직껏 당신이 비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비구니라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근데 스님께서는 비구도 알고 비구니도 아시니 참 훌륭하십니다. 난 훌륭칠 못해서 비구니 비구를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그랬죠. 이런 말을 한 예가 있고, "그러면 비구 비구니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라면 한번 오시죠." 이런 말도 한 예가 있죠. 그런데 안 오셨어요.

여기 앉으셔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갔다 와 보십시오. 어디 뭐가 놓이고 어디 뭐가 놓였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금방 갔다 오실 겁니다, 빛보다 더 빨리.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 바깥으로 훌쩍 떠나서 이 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나. 이 마음이라는 건 내놓을 수 없는 까닭에, 그리고 분별이 많은 까닭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쁜 거 좋은 거는 잘 알지만 나쁜 거 좋은 거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살던 바로 그 업보가 인으로 인해서 과가 돼서 뭉쳤으니 너는 인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또는 세균성이 모두를, 오간지옥의 업보도 당신이 저질렀으면 그것을 해결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물질로서,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지수화풍이 있는 관계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수화풍이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시쳇말로 이산화탄소라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내놔 주는 것이 있다면 저장을 했다가 주는 무정물도 있고, 저런 목신들도 다, 나무들도 저장을 했다가 우리에게 바로 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주고받고 먹고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조화를 이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사장이 없으면 직원도 없다는 사실이죠. 서로가 먹지 않고 서로가 공생을 안 한다면, 또 서로가 공용을 안 한다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종교가 따로 있는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상대성도 없을 것이고 또는 종교도 없을 것이고 부처도 없을 것이고,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수화풍으로부터 이런 컵도 출현을 했습니다. 이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현을 한 겁니다. 흙에 물을 붓고 그렇게 만들어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 구웠습니다. 바로 우주 개공이 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하나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거 하나 그냥 놓여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땅에 발을 붙이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 보신 분 없습니까? 우리는 지수화풍의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자력과 광력과 통신력과 전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재료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하나 이 세상에 났다면 모두 여러분 각자에게 바로 오신통이라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불가에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지금 현재 용어로다가 대 보죠. 이 천안통을 바로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한다면 숙명통 그것을 바로 컴퓨터라고 칠 수 있습니다. 천이통을 천체무전통신기라고 칠 수 있습니다. 탐지기를 바로 타심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족통을 팩스라고 해도 됩니다. 누진통을 바로, 뭡니까?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섯 가지가, 누진통 빼고 다섯 가지가 우리에게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돼 있는 까닭에 바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제를, 바깥에서 들어오든지 안에서 이런 파워가 일어나든지 모든 통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진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은 과거의 업보, 인과응보, 유전성,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지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즉 말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숙명통이라는 그 자체의 컴퓨터에는 이 세상을 거쳐 오면서 과거에, 내가 나기 전에 살

☞ 22면으로 계속

